

■내년 광주시 문화예산 살펴보니

고흐·고갱 ‘인상주의 특별展’… 영화제 지원

문화재단 30억 출연·문화회관 20주년 공연 제작

최근 광주시의 문화관련 내년 본예산이 확정됐다. 내년에는 고흐 등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을 광주에서 처음 감상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행사들이 대기중이다. 내년 예산을 통해 지역 문화계의 흐름을 살펴본다.

▲블록버스터 전시, 공연 러시

광주시립미술관 신년 예산 중 눈에 띄는 것은 고흐·고갱·세잔 등 ‘인상주의 특별전’과 독일의 국보 작가 ‘요셉 보이스전’ 개최를 위해 4억8000만원이 반영됐다는 점이다.

인상파는 일본과 한국 미술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더 없는 감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셉 보이스는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지난 1962년 독일 비스바덴에서 열린 ‘플럭스스 페스티벌’에서 백남준은 3대의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마지막에 도끼로 백남준의 피아노를 내리친 사람이 보이스였다.

시립미술관은 유럽 유명 미술관의 소장품을 모아 예산 절감을 해 적은 예산을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기 위해 해당 미술관 관계자들과 협의 중이다.

내년으로 개관 20주년을 맞는 광주 문화회관은 굵직한 개관 기념 공연을 준비중이다.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회관 측은 광주시립소녀소녀합창단을 주축으로 제작할 ‘까투리 까투리’를 무대에 올린다. 제작팀은 지난 11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광주시립무용단은 광주브랜드 창작품으로 발레 ‘이순신’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예산은 1억5000만원이다.

문화회관은 또 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우스 매니저 제도로 운영한다.

▲영화제 지원 재개… 눈에 띄는 신규 사업

민간차원에서 진행됐던 광주국제영화제에 내년부터 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올해로 10회째 행사를 진행했던 광주국제영화제는 3회 때부터 문광부에서 5억원을 지원받은 후 시가 매칭 펀드로 5억원을 지원했지만 지난 2005년 5회 행사를 끝으로 시가 지원을 중단했었다. 이후 영화제작은 매년 7000만원~1억원을 자체 조달, 행사를 꾸려왔다.

눈에 띄는 굵직한 예산은 내년 1월 출범하는 광주문화재단 출연금 30억



2011년 지역 문화 사업의 청사진이 될 광주시 문화예산안이 확정됐다. 2008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루벤스바르코’전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원이다. 재단 출연금은 광주문진위 보유액 50억원을 포함해 80억원 규모며 운영비로는 11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현 광주시립미술관 상록분관 인근에 들어설 서구 상록도서관 건립에 10억원과 남구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10억원을 배정했다.

그밖에 사랑터켓 비용도 올해 1억 2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4000만원 확대됐다. 시민예술대학에도 2000만원이 지원된다.

행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노인·유아 감성치료 프로젝트 ‘감성치유 이야기박물관 설치 사업’에 6500만원(국비 포함)이 책정됐다. 전남대 아시

아문화연구소(소장 천득염)는 감성치유 프로그램 개발, 이야기박물관 설치 등 감성치료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구축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山) 테마아시아문화스토리텔링구축사업 용역비로 2억원(국비 포함)도 책정돼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에 내실을 갖출 수 있게 됐다.

한국지역문화인협회(이사장 황하택)에는 광주·전남 지역 대표인 총서·선집 발간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립국극 예술감독 선임된 국악인 윤진철

“광주 대표하는 작품 만들겠다”

광주시립국극단 신임 예술감독에 국악인 윤진철(45)씨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13일 공개 모집을 통해 윤씨를 2년 임기의 신임 예술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극단 예술감독을 거쳐 갔던 이들이 조상현·성창순·송순섭씨 등 원로급 국악인들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40대 예술감독 선임은 신선한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씨는 MBC 국악 프로그램 ‘얼씨구 학당’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도 친숙한 인물이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국극단에 새로운 기운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왔어요. 20여년 동안 전임 단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전통은 이어갈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국극단을 만들어야죠.”

윤감독은 ‘공부하는 국극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좀 더 풍성한 무대를 위해 국악관련악단과도 협조하는 시스템의 변화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작품들을 면밀히 살펴보고려고 합니다. 많은 제작비를 들였는데 정가공연 한 두번 하고



사장시킨 작품은 없는지 살펴보고, 소비적이지 아닌, 생산적인 국극단을 만들어 진짜 광주를 대표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5월’ 관련 작품도 꼭 만들 생각입니다. 고전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모습을 담아내는 작품들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젊은’ 예술감독에 대한 우려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 “단원들은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동료이자 선배 사이라 잘 통한다고 생각해요, 서로 꾸준한 대화를 통해 최

선의 방법을 모색해야죠. 원로 선생님들이 계실 때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죠. 젊다는 게 오히려 단원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감독은 국악예술의 대중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TV 프로 ‘얼씨구 학당’을 통해 ‘아! 우리 국악도 참 재미있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서 행복했죠. 국악이 그만큼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보람을 느꼈죠. 저희 국극단이 이제 그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윤감독은 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광주 대표상품을 제작하고 다양한 장르와의 결합, 아시아 각국과의 교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대 국악과, 용인대 대학원을 졸업한 윤감독은 1998년 전곡대사습놀이 전곡대회에서 최연소 장원을 차지했으며 KBS 국악대상 등을 수상했다. 무형문화재 제5호 고법 이수자다. /김미은기자 mekim@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지역작가들 ‘창작열정’ 맘껏 펼치세요

중흥동에 ‘108 갤러리’ 개관 16~30일 기념전… 작가 선정해 무료대관

광주에 아트페어 참여를 전문으로 하는 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최근 북구 중흥동 일명 오펜지건물에 자리를 튼 108갤러리가 오는 16~30일 개관 기념전을 연다.

이 갤러리는 지난 9월 열렸던 ‘2010 아트 광주’에 지역 작가들을 소개하는 등 개관 준비를 했고, 이번 전시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68㎡의 넓은 전시장과 현대식 조형시설,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쉼터 등을 갖췄다. 지

역 작가 육성을 위해 대관료 없이 작가들 선정해 무료로 전시 공간을 빌려줄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는 김연순·김영수·김해성·문인상·송필용·신철호·위성만·유미경·윤일권·임정기·장현우·정해인·조근호·최재영·플로라정·한희원·구구김씨 등이 참여한 다.

한희원씨는 푸른빛이 감도는 밤하늘, 어둠이 쌓인 마을 풍경, 나뭇잎의 움직임 등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비바람 등을 소재로 서정적인 화풍을

선사한다.

또 송필용씨는 푸른 색으로 단아하게 표현한 대나무 숲의 밤 풍경을 화폭에 담았고, 최재영씨는 꽃밭에서 포근하게 잠든 아이의 모습을 형상화 했다.

이 밖에 조근호씨는 흐릿한 화면의 도시 풍경을 포착한 작품을 전시하고, 김해성씨는 생명력 강한 색채로 표현한 ‘숲의 연인들’을 출품했다.

이 갤러리 구구김 관장은 “지역작가들이 바깥·사카고아트페어 등



김해성 작 ‘숲의 연인들’

유명 미술 장터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화랑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526-2341.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새롭게 바뀐 종합문예지 ‘문학들’

내년 창간 6주년 ‘혁신호’ 발간

지역 대표 종합문예지 ‘문학들’(발행인 송광통)이 새롭게 바뀌었다.

내년으로 창간 6주년을 맞는 ‘문학들’이 최근 통권 22호(2010년 겨울호) ‘혁신호’를 내고 문학잡지의 새로운 지평을 예고해 주목된다.

‘문학들’은 이번 호부터 표지 디자인이 새롭게 바뀌고, 내용도 대폭 개편됐다. 잡지의 지향점을 밝히는 특집을 활성화했으며 창작란은 더욱 풍성해 졌다.

이번 호의 특집은 ‘문화와 민주주의’와 ‘문학사’ ‘들’, 박구용 전남대 교수는 ‘민주주의를 위한 반성’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김형중 조선대 교수는 ‘80년 5월과 문학의 민주주의’에서 “오늘 문학은 죽었다. 혹은 죽어가고 있다”고 선언했다.



혁신호인 만큼 새로운 시도들이 눈에 띈다. 거대 담론이 아닌 소수자들의 담론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이야기들’

코너가 새로 만들어졌으며 문인들의 반짝이는 사유를 이미지와 함께 전시하는 란인 ‘사물들’이란 코너도 생겼다.

연재물도 새롭게 선을 보였다. 서정인 전북대 전 교수가 오비디우스의 ‘Metamorphoses’를 ‘변형들’이란 제목으로 번역해 실었으며 문화사회학자 위경혜씨가 ‘극장의 추억’이란 제목으로 ‘광주현대극장문화사’를 연재한다. 문의 062-651-696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다산의 처녀’ 등 22종

4분기 우수문학도서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은철) 문학나눔사업추진반은 문정희 시집 ‘다산의 처녀’를 비롯한 도서 22종을 올해 4분기 우수문학도서로 선정했다.

선정 도서에는 소설 7종을 비롯해 임철우의 ‘이별하는 골짜기’ 등 소설 6종, 김양미의 ‘따로 또 სამ상사’ 등 아동·청소년문학 7종, 김형수의 ‘흩어진 중심-한국문학에서 주목할 장면들’ 등 평론·수필·회고 2종이다.

이번 우수문학도서 중 지역출판사 간행물로는 유형수의 소설집 ‘스원바이’(문학을 펴냄)와 전성욱의 ‘바로 그 시간’(산지니 펴냄)이 선정됐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는 선정된 도서를 2000부(평론은 1000부)씩 구입해 전국 2200여 곳의 교정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대안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보낼 예정이다. 문의 070-8633-9052. /김대성기자 bigkim@

최고의 병원!!
이 지면을 이용하실 병원
연락주세요!!

문의 전화
062)220-0528 / 010-4767-2676

의료광고 심의필 제070904 중-3205호

‘사과같은 얼굴, 피부미인의 지름길’
강·한·남·자·피·부·미·인

**전립선·탈모
피부레이저**

**강남 피부과
비노기과 의원**
전문의 원장 한 승 호

동구 대인동 30.3번지 2층 -롯데백화점 주차장 주차무료
예약및상담 062) 233-6060

의료광고 심의필 제071129 중-4805호

당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모발이식 · 지방흡입

Before After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 6개월)
복부 허리 둔부 전층 지방 흡입 시술 2년후

아름다움이 시작되는 곳..
기술행형 모발이식 · 눈썹이식

삼선의원 상담문의 TEL. 062) 653-7656

대한외과학회 의료광고심의회에 심의됨 제10093-중-2004

비수술적 디스크 치료
서울 휴신경외과 에 그 답이 있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고민하신다면 먼저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보세요!!
디스크 치료는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증을 제거하여 일상 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서울휴신경외과 홈페이지 www.seoulhuh.co.kr 에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과 다양한 시술 사례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일시술 당일 퇴원 가능

안현 환원 병원
나누리 병원 신경외과 과장 역임
기톨릭의대 신경외과 레지던트 수료
전 한대 외과대학 신경외과 외래교수
가톨릭 외대 신경외과 외래교수

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의사

대한 신경외과학회 회장
대한 척추 신경외과 학회 회장

서울 휴신경외과의원
예약 문의 인터넷 : www.seoulhuh.co.kr
전화 예약 : 062)374-5555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8-1번지 지평빌딩 3층 (상무역 4번 출구 세검리(로얄 힐))
주차번호 : 영남대병원 후문 주차장

진/료/시/간
평 - 금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3시
휴일 : 오전 12시 - 10시
일요일 : 휴진

의료광고 심의필 제080130-중-2696호

**알레르기성
비염
코피 · 축농증**

50년 전통!! 대를 이은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대한생명 옆 한미쇼핑 맞은편
TEL : 062) 227-7575, 223-8300, 222-9487